

광주 동구, 지난해 '못 쓰고 남긴 예산' 365억원

미집행 예산 최근 4년중 가장 많아 구 "이월사업 많아 잉여금 남은것" 구의원 "과하면 재정 균형성 저해" 타 구청 "편성 예산 그해 소진 원칙"

광주 동구가 지난해 못 쓰고 남긴 예산이 무려 365억원에 달하면서 동구의회 의원들이 "재정의 균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 구청도 "편성 예산은 그해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반응이어서 동구의 재정집행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14일 광주동구의회가 최근 심의한 '2022회계연도 광주시 동구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동구 순세계잉여금은 365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4년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연도별로 △2019년 211억 1600만원 △

2020년 222억 1300만원 △2021년 233억 6900만원이다.

특히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그 전년도보다 132억100만원이나 늘었다. 64%나 증가한 셈이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 동안 계산해서 남은 돈 중 순수하게 남은 돈'이다. 즉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해 내년으로 넘기는 금액이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세입초과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주원인이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수치 균형의 원칙을 감안한다면 구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도 된다.

동구의회는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명시이월액이 큰폭으로 증가했다"며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세입세출의 효율성과 재정의 균형을 저해한다"며 "예산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 분석하고, 예산액을 정확히 판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구의 순세계잉여금이 급증한 것은 이월사업의 증가 때문이다.

이월사업은 2021년 242건에 501억 3500만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292건에 742억72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보고서를 보면 명시이월 된 사업이 많았는데, 연도별로 △2019년 237억 9500만원 △2020년 185억 6500만원 △2021년 327억 2100만원 △2022년 509억2800만원이다.

명시이월액은 회계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금액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다고 해도 결코 바람직한 예산운용은 아니라는 것이 동구의원들의 지적이다.

타 구청 관계자도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해 다 소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면서 "변수가 있어서 명시이월해도 규모가 최소화돼야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지자체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을 긍정적 신호로 보지 않는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세워야 하며 이는 세입금액과 세출금액을 일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순세계잉여금만큼 지역 주민은 받을 수 있었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

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구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난해는 사업을 집행하고 마무리가 안돼서 이월된 금액이 많았다. 연계해서 계속 이어갈 사업들이 많다"며 "예산편성 할 때 어느정도 유보율을 잡아놓는다. 다 쓰지 않고 집행 잔액을 남기는데, 잔액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박형정 동구의회원은 "예산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동구의 반성이 필요하다"며 "예산 집행 실적률이 낮다는 의미인데, 이월사업의 건수가 최다라는 점에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5·18 단체, 역사 왜곡 댓글 작성자 고소

유공자 특혜·북한군 개입설 허위사실 유포 작성자 10명

5·18공법단체가 5·18민주화운동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 댓글 작성자 10명을 고소했다.

15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회장 정성국)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의거해 현재 인터넷 뉴스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댓글 작성자 10명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 서부경찰에 제출했다.

이번 고소조치를 받게 된 댓글의 내용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허위사실 △시민군 선무장, 선발포설 △북한군 개입설 등이다.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허위사실로는 연금, 자녀 군면제 혜택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5·18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보훈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군면제 혜택 또한 없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SNS나 유튜브, 각종 언론사 댓글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해가 빈번하고 있다. 어느 기간을 설정해서 댓글 수집을 한 것이 아니라, 당장 30여 분만 언론 기사를 들여다 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댓글이 수십 건에 달한다. 여태까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만 고소했다면, 이번 고소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대한 댓글로 5·18민주화운동은 물론 피해당사자인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까지도 사례를 확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황 회장은 "현재 경찰과 전광훈 목사가 소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 목사는 엄연히 진실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최대한 빨리 소환에 응해 법 위에 군림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청사 내 일회용품 가져오지 마세요" 고 있다.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15일 북구청 광장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직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제한 캠페인을 펼치

광주 북구 제9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